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대받고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마이 회원,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모름지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퀴어라면 정신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

사랑하는 퀴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혹은 유튜브에서 보았나?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말이었다. 내 주변의 표본으로만 보면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과거에 먹었거나, 현재 먹고 있거나, 먹어야 하는데 병원 가는 날짜를 미루고 있거나 셋 중 하나였다.[1] 이 미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다면 단단하고 안전한 특권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바깥의 모든 존재가 부디 자신들의 명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안전+권리+연대를 다짐하며

이 이야기는 11월 20일의 TDoR(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끄적이는 글이다. TDoR은 1998년 11월 28일 미국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로 흑인 트랜스 여성이었던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했던 사건을 계기로, 1999년 11월 20일부터 트랜스 혐오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리고, 함께하는 국제 기념일이다. 한국 역시 이 시기에 맞춰,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추모에서 시작해 광장에서의 규모 있는 행동과 집회로 이어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2026 트랜스마치(Trans March)"라는 이름으로, 11월 21일 토요일 15시 보신각에서 집회가 준비, 조직되고 있다.

1) 2020년의 국내 역학 연구에서 트랜스젠더 인구 집단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6~10배, 자살 사고는 6~19배 높았다. Lee H, Operario D, van den Berg JJ, Yi H, Choo S, Kim SS. Health Disparities Among Transgender Adults in South Korea. Asia Pac J Public Health. 2020 Mar-Apr;32(2-3):103-110.

나는 시스젠더이고, 운 좋게도 밥 굶을 일 없는 직업을 갖게 됐다. 나는 충분히 앨라이(소수자 집단의 당사자는 아니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일까? 시스젠더로서 갖는 특권은 공기와도 같아 내가 제대로 알아채기 어렵다. 그래도 "나는 앨라이야!" 라고 용기내어 말하고 싶다. 어쩌다 이 주제가 화제에 오를라치면 "나는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어서…"라고 시작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그 말에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담백하게 건네 본다. "저는 친구들 중에 성소수자가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 주변에도 있는데 모르셨던 걸 거예요."

앨라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 '완벽한 앨라이가 되는 법이 아니라 꽤 그럴듯한 앨라이가 되는 법'을 적었다는,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지니 게인스버그 지음, 허원 옮김, 2022, 현암사)라는 멋진 책이 있다. 앨라이로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만 마주하면 주눅들기 쉽다. 그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덜 완벽하더라도 '앨라이 되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한다.

"성소수자의 동료가 된다는 것은 곧 성소수자 동료를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상 속 시스젠더로서의 특권을 온전히 깨닫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트랜스였다면?' 하고 가정해 본다. 나는 여성인데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은 나를 과연 받아들였을까.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 학업과 안전한 삶을 지원했을까. 밖에서 남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도 마음 편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모든 삶에서 완벽하게 남장을 하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될 텐데). 취직하기 전에 몇천만 원을 벌어서 수술까지 하고 성별 정정을 마칠 수 있을까. 의료적 트랜지션을 하더라도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패싱될지도 사람마다 다른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상상할수록 하드코어하다. 그런 난이도 높은 세상을 혼자서는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 가까이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길 바라본다. 다시 시스젠더인 나로 돌아가서, 나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평온한 하루를 이어가는 데 무엇을 보탤 수 있을지 고민해 본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우리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가 있다. 앞서 언급한 지니 게인스버그의 책 외에도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성소수자의 직장 동료를 위한 일터 가이드북>(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라는 훨씬 짧은 가이드북이 있는데, pdf가 공개되어 있고 무료다. QR을 동봉하니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성소수자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한 해설과 동료가 나에게 커밍아웃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연습해 볼 수 있는 적당한 멘트



▲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왼쪽)와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오른쪽) 책표지 이미지.

도 소개되어 있다. 맨 뒤에는 내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 "성소수자의 동료가 된다는 것은 곧 성소수자 동료를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앨라이는 더 늘어나야 하고,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성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책과 미디어를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일터에서 성소수자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언어와 제도를 마주하지 않으면 좋겠고, 서류에 정확한 젠더를 표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성소수자 동료에게, 고객에게, 환자에게, 민원인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너무 큰 이야기 같다면 내 주변, 나보다 상사인 사람 딱 한 명만 앨라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 코로나보다 독감보다 더 큰 전파력으로 앨라이가 퍼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본다. 성소수자인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대받고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 - 성소수자의 직장 동료를 위한 일터 가이드북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2023)